

## 북한의 권력게임과 빗장전략\*

한병진(계명대학교)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북한 국내 정치와 정책을 좀 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투쟁을 미시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고,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이 왜 개혁에 소극적인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조정게임을 통해 사상적 통일성을 가정하지 않고도 북한 엘리트의 충성과 협력이 왜 강고한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인우상화 정책이 왜 독재정권의 공고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지 역시 조정게임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특이성은 보편적 이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특이한 만큼 북한 연구가 사회과학 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관찰 연구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수정 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과학적 상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제어: 소규모 지배연합, 지명게임, 개인우상화, 조정게임, 전망이론

---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으로 개최된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의 학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다. 이 논문의 3장은 2012년 필자가 수행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부에 바탕을 두고 있다.

## 1. 서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한을 좀 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투쟁을 재조명하여 북한 개인독재체제의 형성 과정을 재정립할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합리성 가정에 도전하는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이 왜 개혁에 소극적인지를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 조정게임을 통해 북한 엘리트의 협력이 왜 강고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의 협력이 변화에 취약하다는 역설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인우상화 정책이 왜 독재정권의 공고화에 결정적인지도 조정게임을 통해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론적 시도를 통해 필자는 북한의 특이성을 보편적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별히 북한을 주체사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에 반대한다. 예를 들어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한 엘리트의 공고한 협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이 사상과 신념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협력에 대한 일반 사회과학 이론에 비추어볼 때 북한 엘리트는 현재 공고한 협력을 유지할 강한 공동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협력은 행위자의 사적 이해와 사상이 이질적인 경우에도 상당히 공고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상황은 협력에 대한 사회과학 이론을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뒷받침한다.

북한을 일반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예로서 필자는 북한 수령체제의 공고성을 들 수 있다. 조정게임의 논리를 빌릴 경우 북한의 공고한 수령체제 역시 혁명적 수령관의 내재화라는 논리를 피하면서도 충분히 그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엘리트 모두가

철저하게 주체사상화되지 않더라도 공고한 수령체제가 가능하다.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공동의 인식(common knowledge)인 경우 이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없이 엘리트 개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1)</sup> 다른 이들이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기대할 경우 자신의 지배전략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 절대적 충성을 위한 공적 행위는 다른 관찰자의 기대를 강화한다. 이러한 상승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거치면서 수령체제는 흔들림 없이 공고하게 유지된다.<sup>2)</sup> 여기서 주요한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사적으로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더라도 북한식 수령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마치 당나귀 임금님의 이솝우화와 일맥상통한다.<sup>3)</sup> 이처럼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한의 특수성을 보편적 이론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이 논문은 내재적 접근과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비교정치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확대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

- 
- 1) 공동의 인식이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 시위와 집회, 범죄, 기술 확산, 패션, 여론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David Lewis, *Conven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p. 5~51; Michael Chwe,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을 참조할 수 있다.
  - 2) 선택의 상호 의존성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최초의 고전적 연구로 미국사회 인종 분리현상을 다룬 Thomas Schelling,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8)를 참조.
  - 3) 이런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로 정의한다. 다원적 무지 등 인간의 순응성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에 걸쳐 널리 이루어졌다. 정치학과 관련 있는 연구로 Cass Sunstein, *Why Societies Need Dissent*(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를 참조.

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글에서 필자가 의거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전망이론은 현대 사회과학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이론 모두 북한의 권력투쟁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각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북한 연구와 북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달리는 기차의 차창 밖을 바라보는 양상으로 전개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북한이 지니는 정치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시시각각 쏟아지는 북한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매일매일 주식변동을 설명하는 주식 평론가들의 모순된 발언과 결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sup>4)</sup> 학계를 넘어 북한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담론은 과도한 설명과 이론의 빈곤이라는 역설이 공존한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하에 이 연구는 어떤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북한 연구에서 이론의 대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분석적 유용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권력게임

### 1) 북한의 소규모 지배연합 형성: 지명게임과 개인우상화

독재정권에서 독재자와 엘리트 관계에 미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지배연합의 규모이다. 지배연합의 규모가 작을수록 독재자의 지배업무는 수월하다.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는 바로 지배연합의 규모를 극단적

---

4) Nassim Taleb, *Fooled by Randomness: The Hidden Role of Chance in Life and in the Markets*(New York: Random House, 2008).

으로 축소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내구성의 핵심 요소이다.<sup>5)</sup> 이 연구는 소규모 지배연합의 논리와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북한의 소규모 지배연합 형성 과정을 죄수의 딜레마게임과 조정 게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북한 지배연합의 규모는 몇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과대 지배연합의 형성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과,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의 연합체로 시작했다. 과대 지배연합을 구성함으로써 체제를 반대하는 잠재적 도전자가 스스로 도전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었다.<sup>7)</sup> 이는 적에 대해 확고한 힘의 우위를 통해 전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 손자(孫子)의 전략적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배연합을 축소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재자와 엘리트의 정치게임을 지명(指名)게임으로 명명한다. 이는 독재자와 엘리트의 협상게임으로 분석하는 게디스(Barbara Geddes)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sup>8)</sup> 독재자는 지배연합

---

5)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제1호 (2009), 119~141쪽.

6) 죄수의 딜레마게임과 조정게임은 일반 게임이론 교과서에서 널리 다루고 있다. 정치학에 적용한 조정게임 연구로 Michael Chwe,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Russell Hardin, “Why a Constitution?,” in Bernard Grofman and Donald Wittman(eds.), *The Federalist Papers and the New Institutionalism*(New York: Agathon Press, 1989); Russell Hardin, *One for Al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를 참조할 수 있다.

7) 이는 선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가 확실함에도 선거부정을 자행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멕시코 제도혁명당은 선거부정을 통해 더 많은 표차를 만들어 반대당의 도전을 억지한다. Beatriz Magaloni, *Voting for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8) Barbara Geddes, “Minimum Winning Coalitions and Pers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권력자원의 경합성으로 인해 과대 지배연합의 엘리트 역시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해를 지닌다. 지배연합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과대 지배연합을 최소 지배연합에 가깝게 축소하려 한다.<sup>9)</sup> 엘리트의 이러한 이해에 편승하여 아직 충분하지 않은 개인 권력을 지닌 독재자는 주요 엘리트를 제거할 수 있다. 자신이 지명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엘리트는 독재자의 지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배 엘리트를 하나씩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이는 의자 빼기 게임(musical chairs game)을 닮았다. 음악이 멈추면 행위자는 하나가 부족한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계임을 한다. 지명게임에서 엘리트는 눈치를 보는 대신 독재자의 지명을 기다린다. 이 게임에서 독재자는 초점의 역할(focal point)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sup>10)</sup> 엘리트는 자신이 지목되지 않는 한 누군가를 제거하길 원한다. 문제는 자신들의 선택을 일치시켜야 한다. 즉 조정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딜레마를 독재자의 지명이 해결한다.<sup>11)</sup> 독재자가 누군가를 지목할 경우 각자는 다른 엘리트가 독재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듯 수렴하는

---

ciation in 2004.

- 9) 지배연합은 최소 지배연합으로 간다는 명제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로 William Riker,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를 참조.
- 10) 초점의 역할(focal point)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로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h. 3을 참조.
- 11) 독재자가 공개 비판과 주기적인 숙청을 통해 지배연합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필자의 주장은 슬로빅(Slovik)의 게임 모델과 큰 차이가 있다. 그는 독재자의 정치적 의도를 반신반의하는 엘리트의 불확실성을 독재자와 엘리트의 상호 작용의 핵심 요소로 가정한다. Milan Slov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3~80.

기대에 기초하여 자신 역시 독재자의 선택에 동조한다. 독재자의 선택으로 엘리트의 기대가 수렴하면서 지명된 엘리트가 제거된다.

여기서 엘리트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중요하지 않다. 김일성의 명령을 무조건 추종하겠다는 절대적 충성심과 상관없이 조정의 이해관계로 인해 엘리트는 김일성의 숙청 대상 지명에 복종한다.

한국전쟁을 통해 무정, 박일우, 허가이, 박헌영 등 주요 파벌 지도자가 제거되는 과정을 이러한 지명게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49년 6월 질서’로 명명될 수 있는 전전 북한의 정치질서는 김일성의 헤게모니에 허가이와 박헌영이 상당히 근접한 형세이다.<sup>12)</sup> 이러한 권력배분 상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자신의 주요 경쟁자를 별다른 집단 저항 없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독재자와 엘리트의 정치게임이 지명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김일성이 숙청대상을 지명하면 지배연합의 축소를 원하는 다수 엘리트는 김일성의 결정에 동참하는 식으로 주요 경쟁자가 하나씩 제거되었다. 무정과 허가이의 경우 각각 연안파와 소련파의 대부였으나 이들 파벌의 집단적 저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엘리트 숙청이 지명게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양상이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숙청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3)</sup> 이는 엘리트가 집단적으로 저항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을 목적에서 비롯된다. 공격과 수비에서 속도와 비밀유지는 손자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일성은 숙청이 있기 훨씬

---

1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13) Stephen Harber, “Authoritarianism,” in Barry Weingast and Donald Wittma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699.

전에 공개 비판 등을 통해 다음 숙청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한다.<sup>14)</sup> 만약 엘리트의 집단 반발을 예상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방식이다. 하지만 공개 비판을 통해 오히려 다음으로 의자를 빼앗길 엘리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배연합의 규모가 다시 한 번 변화하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투쟁이다. 1952년 12월 당 중앙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박헌영의 숙청과 함께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수령의 호칭을 얻었다. 개인우상화는 1953년 당 중앙위원회에 사회과학부를 설치하여 김일성의 항일유격 혁명전통을 본격적으로 선전 선동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55년 12월에 이르러 정점을 찍는다. 12월 하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개인우상화, 항일무장투쟁, 주체라는 삼위일체를 완성한다.<sup>15)</sup> 잠재적 주요 경쟁자가 사라지고 개인숭배가 만연한 상황에서 중하급 공산관료가 김일성에게로 쏠린다. 김일성으로의 쏠림은 자기강화적으로 발전하면서 김일성의 개인독재 권력이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관계에서 김일성과 그의 측근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내었다. 이의 표현이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이다.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파가 약진하면서 소련파와 연안파가 배제되는 양상이었다.<sup>16)</sup> 이러한 김일성의 움직임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8월 종파사건이다. 하지만 이들의 힘은 김일성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 독재를 복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월 종파사건에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다수 엘리트의 지지를 확보

---

14)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서울: 한울, 2010).

15) 위의 책, 288~289쪽.

16) 위의 책, 210쪽.



<표 1> 엘리트의 충성게임

		행위자 B	
구분	엘리트와의 협력	충성	
행위자 A	엘리트와의 협력	현상유지, 현상유지	숙청, 소규모 지배연합 소속
	충성	소규모 지배연합 소속, 숙청	p* 소규모 지배연합 소속, p*소규모 지배연합 소속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잠시 살펴보자. 분명 김일성파에 직접 소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엘리트는 미래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연합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협력을 통해 김일성파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해를 지닌다. 하지만 협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배신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지닌다. 이를 다음 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 엘리트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하나는 다른 엘리트와 협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충성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엘리트가 협력할 경우 당 독재를 통해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엘리트가 모두 충성 경쟁을 펼칠 경우  $p(<1)$ 의 확률로 지배연합에 남을 수 있다. 만약 자신만이 충성할 경우 숙청을 모면하고 지배연합에 남을 수 있다.

이 게임의 선호도 배열은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닮았다. 선호도는 소규모 지배연합 소속 > 현상유지 > p\* 소규모 지배연합소속 > 숙청이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는 충성이 행위자의 지배전략이다. 그리고 게임의 균형점은 p\* 소규모 지배연합소속이다.

더욱이 엘리트의 충성게임은 반복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번 배신을

당할 경우 행위자는 재기불능상태에 빠진다. 즉 미래의 그림자(shadow of future)가 매우 짧다.<sup>17)</sup> 정치적 지위뿐만 아니라 생명마저 앗아가는 숙청이 가능하다는 전반적인 인식하에서 엘리트의 정치게임은 전형적인 일회성 게임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에서 상식으로 회자되듯이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전무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배신의 유혹을 극복하는 두 가지 고전적 방식이 있다. 하나는 배신자를 처벌할 능력과 의지를 지닌 제3의 심판자에 의거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반복적 만남을 통해 행위자 스스로 처벌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 게임에서 배신자를 직접 처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각 행위자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협력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독재의 경우 엘리트의 충성게임에서 한번 배신당할 경우 배신당한 자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숙청으로 인해 보복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회성 게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단기적 지배전략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행위자의 선택에 상관없이 독재자에게 충성 혹은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이 숙청을 자제할 이유가 없다.

## 2) 김정일, 김정은 시대 권력게임

개인 독재 권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독재자는 일반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를 파괴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탈린(Joseph Stalin)이다. 공산당은 현대판 의전회의라 할 수 있다.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

---

17) 미래의 그림자가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 Robert Axelor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s, 1984)을 참조.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이 제도화될 경우 엘리트는 독재자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독재자의 권력을 제약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는 정부나 당의 의사결정제도의 제도화를 방해한다. 이렇듯 공산당의 제도화는 독재자와 엘리트 관계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sup>18)</sup> 실제로 당이 제도화되면서 소련과 중국에서 독재자의 권력은 크게 제한되는 양상을 보였다.<sup>19)</sup>

특히 북한이 권력승계과정에서 개인우상화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 중국의 경우 후계 문제가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서 엘리트의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투쟁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엘리트의 명시적 합의로 발전했다. 후르시초프(Никита Сергеевич Хрущёв)나 덩샤오핑(鄧小平)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우상화를 금지시켰다. 이와 달리 북한은 개인우상화를 통해 부자세습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김정일은 북한의 개인우상화가 제공하는 전략적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고난의 행군 등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했다. 독재자의 권력은 엘리트의 기대가 어디로 수렴하느냐에 달려 있다.<sup>20)</sup> 강력한 개인우상화로 인해 엘리트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뭉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독재자가 개인 독재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18) 근대 영국의 경우 의회가 제도화되면서 왕과 귀족의 힘이 균형을 이루었다.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제도화가 부재했기 때문에 왕이 귀족을 완전히 압도했다. Douglas North and Barry Weingast, "Constitution and Commitmen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1989), pp. 803 ~ 832.

19) Philip Roeder, *Red Sunse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Susan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20) Gordon Tullock, *Autocracy*(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 1987).

시행하더라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공공연히 독재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엘리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각자는 다른 엘리트가 독재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엘리트의 전략은 당연히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다. 이는 다시 다른 관찰자의 믿음을 공고히 한다. 주관적 인식의 상호 작용을 거치면서 개인 우상화를 통해 독재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엘리트의 기대가 수렴된다. 이 때문에 독재자와 엘리트의 권력관계는 동구권의 몰락과 주체경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인다.

김정일은 이러한 전략적 우위를 이용하여 노동당의 정치제도적 기능을 심각히 훼손했다. 김정일 시대 노동당은 한마디로 빈사상태에 허덕였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sup>21)</sup> 공산당 지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국은 ‘개점 휴업상태’였으며 노동당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신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980년 정위원 19명과 후보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은 1999년 정위원 7명과 후보위원 8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당연하게도 김정일 측근은 정치국원들이 아닌 당비서와 전문부서 부부장이었다.

김정일 시대 당정관계에서도 당의 위상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정무원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라는 이름하에 김정일은 내각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했다.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정무원 책임제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로 변경되면서 내각의 정책적 독립성은 더욱 높아졌다.

선군노선을 지도하는 국방위원회의 부상 역시 노동당의 위상하락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방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신했다는

---

21)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2002), 349~371쪽;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61~262쪽.

점은 김정일 시대 당군관계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당내 군사 부문 지배조직인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관리하던 군수산업 관련 제2경제 부문의 권한이 1998년 이후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다.<sup>22)</sup> 이는 선군노선의 주체인 군부에 대한 통제권이 당을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98년 헌법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으로” 묘사한다.<sup>23)</sup> 높아진 조직 위상과 함께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10기 제4차 회의 주석단 서열에서 국방위원들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보다 앞에 위치했다.<sup>24)</sup>

따라서 김정일의 북한은 미국의 북한 연구가가 주장하는 후기전체주의와 상관이 없다.<sup>25)</sup> 후기전체주의의 특징은 당 독재이다. 당 독재를 통해 공산당 엘리트가 독재자를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후기전체주의의 당 독재에서 정부와 군의 핵심 인사는 모두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다. 김정일 시대 노동당은 이와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후계구도가 분명해지면서 당의 지위가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 시발점은 김정은을 공식 추대하기 위해 44년 만에 소집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이다. 이때부터 당·정·군의 분산 대신 당 중

---

22) 이종석, 위의 책, 262쪽.

23) 『로동신문』, 1998년 9월 7일;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358쪽에서 재인용.

24) 위의 글, 358쪽.

25) Patrick McEachern, *Inside the Red Box*(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심으로 국가조직이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한 김정일의 자구책인 측면이 크다.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상설 최고 군사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했다. 이는 당과 분리된 국방 위원회를 대체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이로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좀 더 확고해졌다. 제3차 당대표자회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성립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육해공, 보위, 공안, 군수 등 군 관련 주요 간부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렇듯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상은 김정은 시대를 맞아 당의 위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좀 더 주요한 변화는 정치국의 위상 강화이다. 2012년 제4차 당대회 결과 권력의 핵심 인사 모두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진입했다.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최룡해, 국가안전보위부장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김원홍, 인민무력부 제1 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현철해, 인민무력부장 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김정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모두 당 최고의결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및 정위원이다. 이들과 함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역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이 되었다. 김정일 시대 정치국이 권력 서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제 김정은의 측근은 모두 정치국에 포진하고 있다.

노동당 중심으로 북한 정권이 재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바로 리영호의 해임이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리영호 해임을 전격 발표하였다. 특히 리영호 해임이 정치국의 결정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리영호 해임을 통해 당군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리영호 총참모장과 갈등을 빚은 최룡해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분신이라 불리는 인물로 장성택과 마찬가지로 군이 아닌 노동당에서 경력을 쌓았다. 최근 정치 전면에서 사라진 우동측 역시 야전 출신으로 장성택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측은 4월 당대표자회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우동측은 리영호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운구행렬의 앞에 위치한 실세였다. 따라서 2012년에 발생한 권력투쟁은 김정은이 개인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노동당으로 엘리트가 헤쳐모이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일부 세력이 제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하지만 개인우상화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화가 지속되는 이상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의 제도화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분석했듯이 개인우상화는 단순히 수령에 대한 신격화를 넘어 독재자와 엘리트의 역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공동의 인식으로 만드는 개인우상화가 행해지는 이상 노동당을 통한 엘리트의 수평적 연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분명 김정일 시대에 비해 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그 위상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정은의 개인 독재권력이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약하지만 김정은과 엘리트의 힘의 배분상태는 유동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 3) 조정게임을 통해 본 북한 엘리트의 협력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을 통해 북한 엘리트의 협력을 이해할 경우 북한 엘리트가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쳤다는 설명을 피할 수 있다.

조정게임의 논리를 빌릴 경우 행위자의 사적 신념에 차이가 있더라도 공고한 협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 진다. 서로의 선택을 맞추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통념이 사적 신념을 압도한다.<sup>26)</sup> 이렇듯 조정의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이질적인 사적 이해와 사상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협력을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북한 엘리트의 조정게임을 이해하기 위해 조정게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조정게임은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켜야 하는 게임이다. 조정게임에서 행위자의 집단적 선택은 기대의 수렴에 달려 있다.<sup>27)</sup> 나 자신만의 주관적 기대를 넘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기대를 통해 다른 이의 선택을 예상한다. 이는 사회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미인대회를 닮았다. 미인대회의 상금은 미인을 맞추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참가자가 미인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상금을 원하는 심사위원은 자신의 미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켜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대의 수렴이 일어난다. 나의 기대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와 상대방의 기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수렴하면서 조정의 균형점에 도달한다. 정권 지키기와 관련하여 다수가 정권이 존속한다고 믿는다면 정권은 유지된다.

그렇지만 조정게임이 항상 현상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수 엘

---

26) Roger Myerson, "Justice, Institutions, and Multiple Equilibria,"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2004), pp. 91~107.

27)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h. 3.



리트가 정권이 곧 무너진다고 믿는다면 이 또한 현실이 된다. 바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소련이다. 당시 총서기장은 공산당 엘리트의 시장 개혁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화 조치를 취했다. 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끌어들이으로써 공산당 엘리트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 결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엘리트의 기대를 흔들었다.<sup>28)</sup> 소련의 붕괴에 대한 기대가 가파르게 수렴하면서 마침내 엘리트 다수는 정권으로부터의 탈출을 결정했고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했다.

주체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 엘리트의 기대는 정권 지키기로 수렴했다. 함께 정권을 지킨다는 사회적 통념이 북한 엘리트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다. 이에 기여한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북한의 성공적인 국가 건설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강한 국가는 정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엘리트에게 부여한다. 협동에 대한 고전적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행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다.<sup>29)</sup>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현재의 선택이 좌우된다. 미래의 소득이 크고 확실하며 내가 그 미래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면 행위자는 현재 자신의 기회주의를 억지하고 협력을 선택한다. 주체사회주의는 외부와 고립된 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를 건설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은 북한 엘리트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이들이 현재 정권 유지를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sup>30)</sup>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빈곤한 경제로 인해 엘리트는 국가에 더욱 집중한다. 주체 발전노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가는 북한 엘리트의

---

28) Steven Solnick, *Stealing the Stat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29) Robert Axelor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30)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9~141쪽.

유일한 보물단지이다. 북한 엘리트가 기댈 곳은 국가밖에 없다.<sup>31)</sup> 더욱이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과 조직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으며 국가 전체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높은 상보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에 기대는 엘리트는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 이동·소유할 수 없다.

특히 북한 엘리트의 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상호 의존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의 수렴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sup>32)</sup> 일정한 수의 행위자가 같은 기대를 하면 다른 이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기대로 진행한다. 막강한 군사력과 고도의 억압기구로 무장한 국가제도, 독재자의 단호한 체제 수호 의지 등은 핵심 엘리트의 공고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하급 엘리트에게 영향을 주어 이들의 충성을 이끌어냈다.

국가밖에 없는 북한 엘리트는 강한 조정의 이해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북한 엘리트는 주체사상에 대한 사적 신념의 정도에 상관없이 다수 엘리트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엘리트 개개인은 현재 균형점에서 이탈하지 않고 북한 지키기에 매진하고 있다.

---

31) 한병진,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4호(2006), 1~29쪽.

32)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독립적인 선택의 총합으로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는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문턱값 모델을 통해 사회적 선택이 사회적 영향력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즉 타인의 선택이 다양한 이유로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Mark Granovetter, “Threshold Models of Collective Behavior,”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6(1978), pp. 1420~1443.

### 3. 북한의 빗장전략

전통 놀이인 장기로 비유하자면 북한은 현재 빗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차포(車包)를 잃은 상황에서 적을 이기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철저히 수비대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수구전략은 전망이론과 개혁의 정치경제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전망이론에 의거할 경우 현 상황을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 행위자의 인식에서 핵심 요소는 바로 행위자의 주관적 목표이다. 주관적 목표에 따라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행위자가 자신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감수형 개혁을 회피한다.<sup>33)</sup>

이와 함께 마키아벨리(Machiavelli, Niccoló)가 『군주론』에서 분명히 밝히는 개혁의 정치경제 논리에서도 북한 개혁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개혁은 손해를 보는 자와 이득을 보는 자로 갈린다. 손해를 보는 자는 소수이지만 이들의 피해는 막대하고, 이득을 보는 자는 다수이지만 이들의 이득은 집단행동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분명한 손실은 현재 발생하지만 개혁의 이득은 불확실한 미래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기존 엘리트와 정책결정자의 힘의 역관계가 중요한 변수이다. 전망이론과 개혁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현상유지 정책을 분석해보자.

---

33) Daniel Kahneman, *Thinking, Fast and Slow*(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34)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군주론』(서울: 까치, 2012), 43~44쪽.

## 1) 북한의 비기기 게임

북한은 강한 현상유지 편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은 객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군사대결노선을 유지하는 북한의 정책과 태도를 일컫는다. 사실 2000년대 초 북한의 시장개혁은 배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생존을 위한 자연발생적 노력을 추인한 것일 뿐이다.<sup>35)</sup>

그렇다면 북한 엘리트는 왜 심각한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북한 엘리트의 수구적 목표 인식에 연유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전후로 ‘적화통일’과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꿈을 접고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를 외치며 소규모 지배연합 정권의 유지라는 수구적 목표로 자신의 인식을 재조정했다. 그리고 독재자와 엘리트의 협력게임을 통해 북한은 이 목표를 십분 달성하고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행위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회피한다.<sup>36)</sup>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회피하고자 행위자는 위험한 개혁을 추구한다. 북한의 수구적 목표 인식하에서 현재 북한 엘리트는 장기로 치면 빗장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지키기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소규모 지배연합에 기초한 주체사회주의하에서 북한 독재자와 엘리트는 공고한 협력게임

---

35)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36)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Choices, Values, and Fram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aniel Kahneman, *Thinking, Fast and Slow*.

을 펼치고 있다.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경제적 위기에도 군사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부 행위자의 간섭을 억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sup>37)</sup> 이에 덧붙여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지원, 당장이라도 시장화할 수 있는 광물자원 등은 북한의 소규모 지배 엘리트에게 다양한 정치자금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북한이 현재 상황을 손실의 국면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바로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이 존재한다. 최소한 비기는 게임을 하는 행위자는 불확실성에 대해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인다. 상황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회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필자는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 위험감수형 태도를 지닌다는 빅터 차(Victor Cha)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sup>38)</sup> 만약 북한이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대외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함께 대내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경쟁과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황을 손실로 인식했을 것이다. 체제경쟁이라는 인식하에 남한의 공산화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현재는 손실이 발생하는 국면이다. 나날이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북한 엘리트는 손실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경쟁과 적화통일 대신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

37)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9~141쪽.

38) Victor Cha, “Weak but Still Threatening,” in Victor Cha and Davi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 13~40.

불패라고 외치며 정권 유지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정권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 북한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위협에 대한 태도는 위협 회피적이다. 따라서 근본적 개혁이 유발하는 불확실성 대신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한다.

이러한 인식적 편향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경제특구 방식의 점분산형 개방정책에 매달려 정치적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나선지구와 황금평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북·중 경협은 북한이 이러한 해결책을 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거하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을 채택했으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 보충했다.<sup>39)</sup> 이는 북·중 특구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이다. 최근 장성택의 방중에서 핵심 의제 역시 두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식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현 북한 엘리트의 정치경제적 이해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11년 의무교육을 12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이 결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개인독재 권력에 대비해 엘리트의 집단 권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정치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당의 부

---

39) 『중앙통신』, 2011년 12월 8일.

상으로 북한 엘리트의 권력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이 전통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북한 지배 엘리트 후보 집단이 축소하고 있다. 이는 노동당의 부상과 함께 엘리트의 권력 지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개인우상화는 카리스마적 정당성 대신 전통적 정당성(traditional legitimacy)을 닮은 듯하다. 개인의 비범한 능력 대신 가계의 혁명 전통을 강조하는 가계우상화에 기대고 있다. 말 그대로 왕조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손자이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정당성이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맡았던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 노동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조선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수정 규정했다.

카리스마적 정당성보다 전통적 정당성이 엘리트에게 유리하다. 이는 선택권 이론(theory of selectorate)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sup>40)</sup> 전통적 정당성은 지배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의 범위를 제한한다. 즉 지배연합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독재자의 개인적 총애와 함께 혁명 가문에서 출생하거나 이들과 인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배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 집단의 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W$ (지배연합규모)/ $S$ (지배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 집단)의 비율 값이 증가한다. 이 값은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충성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 값이 증가할수록 충성도는 낮아진다. 이제 지배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자는 더욱 많은 자원과 권력을 엘리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

40) Bruce Bueno de Mesquit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Cambridge: MIT Press, 2003).

엘리트의 입장에서 지배연합 후보군의 축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이다. 엘리트는 자신이 지배 엘리트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한 지배 엘리트의 규모가 작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유재의 경합성으로 인해 나누어 가져야 할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 엘리트는 김씨 일가만큼이나 현상유지를 원한다. 나아가 지배연합 후보군의 축소로 독재자 개인 권력에 대비하여 엘리트의 집단 권력이 개선된다면 엘리트 입장에서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극도의 소규모 지배연합 정권에서 지배연합 후보군의 축소,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당의 부상 등은 현상유지에 대한 엘리트의 이해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 최고인민회의의 의무교육연한 변경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제시해보자. 필자는 김정은이 교육이라는 가장 비정치적 부문을 건드리면서 정책 변화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한다. 좀 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개혁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엘리트의 집단 반발을 극복할 능력이 아직 김정은에게는 없다. 하지만 약간은 뜬금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정책 변경에 대한 의지를 엘리트에게 알린 것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하자면 향후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의 권력관계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앞서 밝혔듯이 개인우상화는 독재자에게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는 정치 논리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김정은 자신의 개인 독재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김정은과 엘리트의 권력관계 변화의 징후로 엘리트의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입안되는지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북한 엘리트가 사적으로 보유한 달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입이 있을 경



우 이는 김정은과 엘리트 권력관계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달러 경제에 대한 손질은 엘리트의 경제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 4. 결론

이 논문은 북한의 특수성으로 치부되는 현상을 사회과학 일반이론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령 중심 체제는 북한 엘리트의 주체사상화 대신 조정게임의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수령 체제로 엘리트의 조정이 일단 이루어지면 수령 체제의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소련과 중국의 경우 개인우상화로부터의 이탈은 후계자 승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가 부재한 북한의 경우 개인우상화라는 균형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공산당이 독재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후기전체주의 정권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 역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로 재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다. 초기 과대지배연합은 독재정치의 논리상 최소지배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소지배연합을 원하는 독재자와 엘리트의 이해가 합치하면서 지명게임을 통해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우상화의 도움으로 개인독재 권력이 집단행동력을 상실한 엘리트를 압도했다.

북한의 극단적 수구정책은 개혁의 정치경제와 전망이론의 도움을 통해 좀 더 보편적인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행위자는 주관적 목표에 따라 현실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

도가 결정된다. 정권 유지 자체가 목표인 북한은 지키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빗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현 상황은 위험감수형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 엘리트의 상대적 권력 지위가 향상된 현 상황에서 이들은 체제유지에 강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특이성은 보편적 이론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특이한 만큼 북한 연구가 사회과학 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관찰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수정 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과학적 상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 접수: 2월 25일 / 수정: 3월 26일 / 채택: 3월 29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로동신문』, 1998년 9월 7일.

『중앙통신』, 2011년 12월 8일.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마키아벨리, 니콜로(Niccolò Machiavelli), 『군주론』, 강정인·김경희 옮김(서울: 까치, 2012).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서울: 한울, 2010).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2) 논문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2002).

한병진, “엘리트의 지대추구 유형과 정권의 경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4호(2006).

\_\_\_\_\_,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제1호(2009).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Axelor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New York: Basic Books, 1984).

Bueno de Mesquita, Bruce,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Cambridge: MIT Press, 2003).

- Cha, Victor D. and Kang, David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Chwe, Michael,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Haggard, Stephan and Noland, Marcus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Washington, DC: I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ardin, Rusell, *One for Al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Kahneman, Daniel and Tversky, Amos *Choices, Values, and Fram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 Lewis, David, *Conventio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Magaloni, Beatriz, *Voting for Autocrac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McEachern, Patrick,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Riker, William,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 Roeder, Philip, *Red Sunse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1978).
- Shirk, Susan,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Sunstein, Cass, *Why Societies Need Dissent*(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Solnick, Steven, *Stealing the Stat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Svolik, Milan,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Taleb, Nassim, *Fooled by Randomness: The Hidden Role of Chance in Life and in the Markets*(New York: Random House, 2008).

Tullock, Gordon, *Autocracy*(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 1987).

## 2) 논문

Geddes, Babara, “Minimum Winning Coalitions and Pers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 2004.

Granovetter, Mark, “Threshold Models of Collective Behavior,”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3, No. 6(1978).

Haber, Stephen, “Authoritarian Government,” in Barry Weingast and Donald Wittma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Hardin, Rusell, “Why a Constitution?” in Bernard Grofman and Donald Wittman(eds.), *The Federalist Papers and the New Institutionalism*(New York: Agathon Press, 1989).

Myerson, Roger, “Justice, Institutions, and Multiple Equilibria,”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2004).

North, Douglass and Weingast, Barry,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1989).

##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 and Draw Strategy in North Korea

Han, Byungjin(Keimyung University)

Is the North Korean regime too peculiar to make social science theories not so useful? In order to demonstrate my negative answer for this question, I analyze power struggle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1960s relying on rational choice game models. I also argue that prospect theory allow us to understand why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reluctant with economic reforms. A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possibility to be able to explain the cohesiveness of the North Korean elites without assuming their ideological homogeneity. Coordination game and a theory of herding behavior could be depended upon to explain why the North Korean elites have maintained a strong cooperation and been unable to change the status quo.

Keywords: minimum winning coalition, designation game, cult of personality, coordination game, prospect theory